

■ 길림성 대학입시 현장 가보다 ■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대들 모두가 승자



▲ 7일 오전, 선생님들의 고무격려 속에서 연변제1중학교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는 수험생들. / 박경남특약기자

“긴장하지만 더 좋은 래일을 위해 화이팅!”

2025년 전국 보통대학교 학생모집 통일시험(대학입시)이 7일부터 9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대학입시는 전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일, 이른아침부터 대학입시 연변제1중학교 시험장 주변은 겨우내기로 들려오는 “화이팅!” 웨침소리 속에서 입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행운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통일로 차려입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다독이는 교원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식 응원에 나선 학부모들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 밖에도 현장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대학입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 공간, 교통관리 등 여러 부문의 집합일군들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편의와 봉사를 제공해주기 위해 주위에 대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다.

“필경 이날을 위해 십여년을 공부에 매진해온 터라 긴장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자신의 전부 실력을 모두 발휘하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단련의 기회가



▲ 7일 오전, 첫 시험을 마치고 미소 지으며 연변제2중학교 시험장을 나오고 있는 수험생들. / 김파기자

자 더 좋은 래일을 맞이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제1중학교 3학년 3학급 수험생 한림휘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살짝 내비쳤다.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또 한번 학생들을 대학입시 시험장에 들여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학급 친구들이 평소의 수준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우

수한 성적을 따내길 바랍니다. 나아가 전반 연변 1중, 그리고 전체 고3 친구들이 대학입시에서 대박나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연변제1중학교 고종 3학년 3학급 담임 김성옥교원은 제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대와 축복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대학입시 첫 과목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면서 “화이팅!” 넘치던

시험장 주변은 차츰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자식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시험장 주변을 지키는 ‘응원단’으로 인해 주위는 긴장감이 살짝 감돌기도 했다.

“평소 하던 대로 발휘 잘하겠죠?”, “어제 밤에는 왜 그리도 잠이 안 오던지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장 밖에서 마음의 ‘시험’을 치르는 부모들도 있었고 “요즘은 AI가 대세라고 하던데 그쪽으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바야흐로 직면하게 될 대학 지망을 토론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는데 만감이 교차해 그런지 추운 줄 하나도 모르겠어요.”라며 막내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구석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시험장을 바라보는 서서 할머니(80세)가 눈길을 끌었다. 부모 대신 3년을 뒤바라지해준 손녀가 혼자서도 뭐든 척 잘해냈다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 김파헤기자

교육부 :

짚은 시험,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등 엄금!

5월 27일, 교육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은 <기초교육 ‘규범적 관리 개선의 해’ 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교육법칙을 위반하고 대중의 리의를 침해하는 학교 운영 행위를 진일보 바로잡았는데 중소학교의 ‘급식운영’, 교재보조자료 주문 및 교복 구매를 리용한 부당리의 도모 등 학생과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한 정비를 심화하게 된다.

통지는 휴일 수업 또는 보충수업,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및 일상 학습과 생활 일정의 불합리한 배치, 학습시간 과다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생들의 학업부담 과중을 초래하는 문제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암묵적인 조작’, ‘우수학생 모

집’,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모집 및 교외 양성기구 규정을 위반한 모집 참여 등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엄격히 시정한다. 규정을 어기고 시험을 조직하거나 학생의 성적 및 순위를 공개하며 고중, 대학 진학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교육평가에서의 비과학적인 문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통지에 따르면 공휴일의 불법 수업 또는 보충수업과 학습시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소학교(哨点学校)’ 제도를 탐색하고 대중들이 관련 문제를 많이 제기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키며 정기적 알람과 학교 진입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청소년학생독서행동 5대 공정 가동

교육부 판공청, 중앙선전부 판공청은 최근 <전국청소년학생독서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함으로 인쇄발부하여 청소년학생 독서행동의 실시 품질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열독을 통해 청소년의 민족문화 뿌리를 다지며 청소년의 종합자질과 혁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강국 건설을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지는 청소년학생독서행동은 기존의 사업 기초에서 5대 공정을 혁신적으로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책향기교정 건설 공정을 실시하여 열독이 학교 교육교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하고 학교가 매주 1~2회의 독서수업을 개설하도록 장려하며 ‘매일 한시간 열독’, ‘주말 반나절 열독’ 행동을 전개하여 독서가 일상화되도록 한다.

열독자원 최적화 공정을 실시하여 자원 공급을 풍부히 하고 열독 보급을 강화하며 ‘한 사람 책 한권, 황금열쇠 선물’ 활동을 전개한다. 특수군체를

관심하고 ‘밝은 미래 계획’과 ‘향촌학교 도서관 진흥 계획’을 실시한다.

열독소양 육성 공정을 실시하여 청소년 열독 지수를 개발하며 열독 지도 대오의 건설을 강화하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 독서 지도 경로 전략을 탐색한다.

과학기술을 통해 독서 혁신 공정을 실시하여 스마트 에너지 부여를 강화하고 디지털 열독과 전통 열독의 결합을 추동하며 ‘AI 열독조수’를 개발하고 중소학교가 점차 ‘AI 독서동반계획’을 포괄하도록 추동한다. 국가 스마트 교육 독서 플랫폼 2.0 버전을 구축하여 디지털화로 청소년 열독과 평생 학습을 지지한다.

열독 성과 전시 전환 공정을 실시하여 청소년학생들이 열독후에 심층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고 ‘보행열독(行走阅读)’을 전개하여 독서와 사고의 결합, 지식과 행동의 통합을 달성하도록 권장한다.

/ 인민넷 - 조문판

화룡시교육국

다각적 조치로 교정 식품안전 방어선 구축



교정 식품안전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이다. 화룡시교육국은 문제 지향성과 혁신 추진력을 결합해 제도 구축, 감독 점검, 사회적 공동 관리 등을 핵심 수단으로 교정 식품안전 보장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세우 교정의 식품안전 방어선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화룡시 당위, 정부의 총괄 배치 아래 화룡시교육국이 주도하여 중소학교 식품안전 및 식비 관리 전담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련석회의를 통해 시장감독국, 교육국 등 부문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업 감독 체계를 형성했다. 시장감독부문과 협력해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전문 양성을 전개하고 ‘집중 양성 + 학기별 평가 + 일상적 공고화’의 장기적 학습 기제를 갖춰 종사자 기능 표준 달성을 보장했다.

화룡시교육국은 여러 부문과 협력해 식품안전과 경비 관리 점검 리스트를 편성했으며 전 시 중소학교를 전부 커버하는 방식으로 개학 시즌 식품안전, 급식소 구조 최적화, 문제 개선 피드백 등 4차례 전면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30 여차례의 일상적 무작위 검사를 전개해 ‘가로세로 모두 연결’된 위

험 요소 조사 체계를 구축했으며 문제 대장(台账)을 작성하고 ‘발견 - 개선 - 재점검’ 폐환 관리를 실행해 위험 요소의 동적 제로화를 실현했다.

‘온라인 + 오프라인’ 립체 감독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공식 위챗계정을 통해 단서 수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학부모위원회의 교정 식품안전 관리 및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전 시 19개 중소학교의 165명 학부모로 구성된 감독팀이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수, 동반식사 감독 등에 참여함으로써 가정 - 학교 협력 관리를 실현했다.

화룡시교육국 지도부는 전문 동반 식사 방안을 제정, 주요 책임자가 선도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사생들과 동석해 의견을 수렴하고 식사 수요를 정확히 파악했다. 동시에 학교별 ‘교정 인기 메뉴 투표’ 활동을 격려해 주간별 ‘인기 메뉴’를 선정하고 높은 득표율 음식을 ‘스타 메뉴’로 지정함으로써 영양 배합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사생들의 식사 참여도를 높여 교정 급식을 ‘공급 보장’에서 ‘품질 서비스’로 업그레이드시켰다.

/ 화룡시당위 선전부



▲ 7일 오전, 첫 시험을 마치고 할머니한테서 응원의 꽃다발을 받은 장춘시 한 수험생. / 류향휘기자

7일, 아침 일찍 장춘시 137중학교 시험장을 찾았을 때 시험장 앞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다. 어떤 학생은 정신을 집중하여 암송하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복습하고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얻으려 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다.

입장 시간이 다가오자 씩씩한 걸음으로 시험장을 향해 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력력했다.

한편, 학교 대문 앞에서는 경찰들이 질서있게 교통을 지휘해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전사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오전 시험이 끝날 무렵 시험장 밖은 수험생들을 고대해 기다리던 부모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첫 과목인데 스타트를 잘 뒀을가?” 부모들의 얼굴에서 소리없는 조조함

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그중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어머니가 눈에 띄었는데 손에는 해바라기꽃을 쥔 채 시험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해바라기는 특별히 준비한 것인데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지방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아이가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조금 긴장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대학입시가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지방하는 대학이 있는 도시로 가서 자신의 미래를 미리 그려보게 하렵니다.”라고 시험이 끝난 후의 일정도 덧붙였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분초를 다투며 ‘두뇌싸움’을 벌이는 동안 시험장 밖은 역시 떨리고 긴장한 마음을 안고 서성이는 학부모들로 또 하나의 대학입시 풍경선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 속에서 치러진 대학입시, 수험생 모두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으리라 믿는다. / 주동기자